

2野 호남 민심 잡기 막판 승부수 띄운다

선택 4·13 ㉠ 총선 D-7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유세
‘광주선언’ ‘전남비전’ 선포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광주 깜짝 방문 카드 검토

4·13 총선이 중반전을 향해 치닫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를 위해 막판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직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호남지역 선거가 상당수여서 막판 민심의 향배에 따라 승패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5·6면〉

우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이번 주말 광주를 방문할 계획과 함께 호남 민심을 움직일 메시지 검토에 들어갔다. 안철수 대표의 방문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방문 여부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안 대표가 선거 막판 광주를 방문, 호남 민심의 막판 결집을 이끄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광주 지역구 후보들은 이번 주말 ‘광주 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광주 선언에서 투표를 통해 정권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길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한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승리한다면 야권의 분류에서 이탈한 더민주의 몰락은 피할 수 없어 호남 민심이 주도하는 야권의 질서와 정권 창출의 길이 마련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지역구 국민의당 후보들도 이번 주말 ‘전남 발전’을 위한 공동 공약 및 비전 선포 등을 통해 선거 막판 국민의당 바람 확산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도 광주 민심을 뒤흔들 막판 반전 카드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거론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에서는 이번 주말 방문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4월 “(호남 지원유세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당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호남의 반문(반 문재인) 정서를 감안한 당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김종민 대표 등 지도부가 부정적인 입장이다. 광주 지역구 후보들도 문 전 대표의 지원 유세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수 을의 백무현 후보가 문 전 대표의 지원 유세를 신청, 전남 방문의 길은 열린 상황이다. 하지만 문 전 대표가 방문한다고 해도 반문 정서를 달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딜레마다. 대선 불출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고 야권 분열 상황에 대한 반성 등으로는 멀어진 호남 민심 달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호남 민심을 잡지 않고서 당과 대선 주자로서의 미래가 어둡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가 선거 막판 광주를 방문,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문 전 대표 측에서는 광주 방문의 메시지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일각에서는 호남 판세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김종민 대표의 비례대표직 사퇴와 문재인 전 대표의 3보1배 지원 유세 등 진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부의 아이디어 차원일 뿐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계란을 맞더라도 문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 민심과 마주하는 것이 오지 않는 것보다 낫다”며 “솔직한 반성과 정권 창출의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금년도 518m 인도 확장 제안 ▶7면

심신 힐링 ‘반려식물’이 뜬다 ▶14면

광주, 시간 속을 걷다-명음사 ▶18면

“눈 빠지게 기다렸지 말입니다” ... 광주 야구의 봄 ‘활짝’



KIA 타이거즈의 홈 개막전이 열린 5일 드론을 통해 내려다본 챔피언스필드 전경. LG와 안방에서 첫 경기를 치른 KIA는 올 시즌 관중 75만6000명이 목표다. ▶관련기사 20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發 ‘녹색 바람’ 수도권으로 부나

국민의당 “호남 굳혔다” 자신감

수도권서 8석 목표·비례도 상향

국민의당이 지난 주말 호남 유세 이후 지지율 상승에 탄력 받아 ‘녹색 바람’을 북상시키기 위해 수도권 공약을 가속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호남권 싸움’을 목표로 내세울 만큼 호남에서 가진 자신감을 발판으로 수도권의 호남 표심을 자극할 경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초 안철수 대표를 제외한 다른 지역구 후보들의 전열을 우려했지만

수도권에서 최대 8석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례대표 의석도 8~10석으로 예상치인 5석을 웃도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서 안 대표 이외 추가 당선자를 내지 못할 경우 자칫 ‘호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제 호남이 제압이 됐다”며 “‘녹색 돌풍’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지금 현재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당 지지율이 20% 가까운 곳도 있다. 지금으로 봐선 비례대표를 10석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내현 선대위 상황본부장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호남에서 점차 수도권으로 (지지세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경합지역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의정부 지원 유세를 한 안 대표는 “(유권자들이) ‘지금 현재 호남에선 야권이 재편돼야 한다, 지금 현재 더민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호남 지지세의 수도권 확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현재 양당 철밥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 반시민들도 많이 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지율 상승을 기대했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수도권에서 안 대표 외에도 정호준(서울 중·성동을)·김성식(서울 관악구)·김영환(안산 상록을)·문병호(인천 부평구)·최원식(인천 계양을)·부좌현(경기 안산단원을) 후보 등의 당선을 기대하는 등 8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정당지지율도 급상승하고 있어 비례대표 의석수도 애초 예상치를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지난 3월 둘째 주 11.1%→셋째 주 12.3%→넷째 주 14.0%→다섯째 주 14.8%로 나타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인구절벽’ 현실화 가임여성 20만명...20년 새 11만 2000명 줄어

전남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20~39세)이 최근 20년간 급감했다. 이에 따라 출생아도 감소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힘을 쏟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임여성 수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인구절벽’(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

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주민등록기준, 전남지역 가임여성 수는 20년전인 1996년 전체 인구(216만6000여명)의 14%인 31만2000여명이었던 것이 2005년 전체 인구(196만7000여명) 중 13%(25만2000여명), 다시 2015년에는 전체 인구 190만여명 가운데

11%인 20만여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20년 사이에 가임 여성이 11만2000여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머지않아 가임 여성 비율이 10%대가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임여성 수가 줄어드는 건 전제 놓여온 인구 감소와 맞물리기도 하지만, 농어촌에서 젊

은층의 도시로 이동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가임여성 비율이 급감하면서 출생아도 감소하고 있다. 1995년 출생아는 2만8100명인 것이 2005년 1만5700명, 2015년 1만5100명으로 20년만에 1만3000명이 사라졌다. 출산율 역시 1995년 1.78에서 2000년 1.73, 2005년 1.28, 2010년 1.54, 2015년 1.55명으로 감소 추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16 내가슴愛약속

내가슴의 건강을 지키는 아리따운 실천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2일(일)

종 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양말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http://me2.do/xRtD1LuJ>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헤라, 아리따움, 르까프

AMORE 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